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제회계기준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바젤Ⅱ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제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였다.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을 것이다.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제회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제회계 기준보다 낮았을 것이다.
- ④ 갑 은행이 바젤Ⅰ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었을 것이다.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Ⅲ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을 것이다.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내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을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조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을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수분+영양 크림으로 나도 ‘꿀피부’ 대학생”

**라힐리 '어스 옥시니아 수딩크림'**  
수험생 대상 '1+1 프로모션' 진행

홈에스테틱 브랜드 라힐리가 수능 준비에 지친 수험생을 위한 수딩크림 '어스 옥시니아 수딩크림(사진)'을 출시했다. 오랜 시간 교실에서 보내면서 수능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은 수험생들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해지기 마련이다.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및 영양분의 고른 섭취 그리고 수분과 영양의 공급을 동시에 집중해야 한다. 라힐리가 출시한 '어스 옥시니아 수딩



진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케어해준다. 22가지 과일&채소에서 유래된 항산화 에너지 결정체 '옥시니아'가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을 동시에 선사하며 맑고 투명한 생기를 부여하며, 미백 효과에 탁월한 NAC성분이 함유돼 투명하고 밝은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라힐리는 수험 생활로 수고한 수험생들이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수능특가 수딩크림 1+1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라힐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크림'은 지중해의 청량한 바다 님은 청록 빛 수딩크림으로 가벼운 텍스처가 수분을 머금은 수분보호막을 형성해 예민해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 제	정 답	배 점	문 제	정 답	배 점
40	㉡	3	43	㉣	2
41	㉡	2	44	㉡	2
42	㉢	2	45	㉣	3